

미국서 푸드테크시장 활성화 모색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익산시, 세포배양육 세계 최고기술 보유기업 '업사이드푸드(UPSIDE FOODS)社' 방문

익산시가 글로벌 K-푸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지난 6월 28일 정부의 2027년까지 K-푸드시장 1100조원 육성 발표에 한발 앞서 미국을 방문해 글로벌 시장진출 공략에 나섰다. 글로벌 식품수도 도약을 위해 대체육,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방향성과 식품산업 트렌드를 살피기 위함이다.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동 방문단은 29일(미 현지시간) 신성장 동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업사이드푸드(UPSIDE FOODS)社를 방문했다.

업사이드푸드는 2015년에 설립된 세포 배양육 전문 제조기업으로 작년 11월 미국기업 최초로 세포배양육(치킨) 분야에 FDA 안전성을 통과했다. 지난 21일 미국 농무부(USDA)의 최종 승인을 받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고, 현재 미국 시장 판매를 앞두고 있다.

세포 배양육이란 도축 대신 동물의 근육 줄기세포를 채취한 뒤 생물반응기에서 배양하는 방식의 육류를 말한다.

우리나라 농식품부도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을 지난해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과제에 포함하고 있어 이번 현지 방문은 '세포배양육' 상용화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동 방문단은 29일(미 현지시간) 신성장 동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업사이드푸드(UPSIDE FOODS)社를 방문했다.

시장 진출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단은 세포 배양육 개발에 뛰어들어 전 세계 100여개의 기업 중 최선도 기업인 업사이드푸드의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총괄운영 책임자인 Amy Chen과 국제규제담당자 등 실무진과 만나 국내 대체육에 대한 정부·산업 동향 설명,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하며 푸드테크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정현을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100조원 글로벌 K푸드 시장을 이끌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과 ICT기술, 문화가 접목된 식품 문화 복합단지으로 글로벌 K식품산업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업사이드푸드 기업방문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푸드테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적 유니콘기업과 밀착해 국내 산업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익산시가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탄소배출 절감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 절감을 통해 현금으로 쌓인 9천4백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시민 6,164세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6개월) 동안 탄소중립실천으로 총 1,514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했다. 이는 느티나무 약 4,240만 그루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약 357만kwh의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도 맞먹는 양이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유형 중 기부를 선택한 500명의 탄소포인트 약 700만원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기부되어 시의 녹지공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가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의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하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현금, 기부, 그린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최근 5년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으로 총누계 24,968가구가 15,924t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이는 3,755만kwh의 전기 사용량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줄인 효과다.

시 관계자는 "일상 속 작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에너지도 절감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는 연중 가입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정책과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6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과 소통 나서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명예통장 회의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12개 국가, 19명의 명예통장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등 시정 홍보는 물론 명예통장의 역할 강화를 위

한 주민센터 이·통장회의 및 각종 봉사활동 참여 등을 요청했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의 시 홍보관에 통역 및 안내를 위한 참여를 요청했으며 군산의 다양한 관광지와 먹거리 등의 생생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박종길 행정지원과장은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명예통장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감사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유부도 식수난 해소 나서

군산-서천 간 상생 발전 협력 일환... 수돗물 공급 실무자 협의

군산시가 서천군과 상생 발전의 방안으로 유부도 식수난 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 협의에 나섰다.

시는 서천군청 수도관련 담당과 만나 유부도 식수난 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 실무자 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는 군산 소룡동 1582-42 일원에서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까지 3km(육상 1km, 해저 2km) 수도관 포설로 유부도 주민 상수도 공급하는 방

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시와 서천군은 이번 협력사업에서 수돗물 공급과 그에 대한 요금 징수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추후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천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 시군 도서지역 주민 식수난 해소 및 상생발전을 위한 최적의 수돗물 공급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북부 도심권 하수관로 정비 본격 실시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북부 도심권 하수관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은 어양동, 부송동, 팔봉동, 정족동, 임상동, 월성동 일원에 대한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2019년부터 환경부 하수관로 정

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비 248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연말까지 28km 오수관로와 1,363가구에 대해 분류식 배수설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사업은 기존에 생활하수와 빗물을 같이 처리하는 방식에서 빗물과 생활하수를 분리해 별도의 전용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

으로 유입 처리하는 방식이다.

상하수도사업단은 하수관로 공사로 북부지역 시가지 일원의 기존 오수관로 개·보수와 병행한 분류식 배수설비 정비로 기존 정화조 유지관리, 수거식 분뇨처리 비용부담 경감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물 증·개축이나 용도변경 시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게 되어 건물주의 업종 변경이 편리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법정·전문교육 실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6월 30일 시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전문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된 법정·전문교육은 2023년 공공기관 필수 법정교육인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고위직), 정립 및 부패방지 예방 교육(고위직 및 전직원)과 스마트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챗GPT 활용법을 실시했다.

김영일 의장은 "조직내 반부패 청렴 인프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챗GPT 등 급속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 의원들의 적응을 도와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고흥사랑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고흥사랑기부금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기부금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공모는 방문·우편(군산시 시청로17, 5층 기획예산과), 이메일(csn03177@korea.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30만원, 장려(4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과(063-454-2612)로 문의하면 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기부자들이 취지에 동참하여 또다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산만의 기부금 사용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